# “고립·은둔 청년에 희망을…이제 함께해요”

##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회복귀 지원 강화
## 4년 136명 발굴…대인관계 도움 29명 자립 발판

# A씨는 집안 사정으로 잦은 이사를 하며 또래 친구들과 충분히 관계를 맺지 못했다. 주로 혼자 지내는 친구들과 어울리던 그는 점차 소심해졌고, 이를 악용한 한 친구의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결국 전학을 거듭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성인이 된 뒤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자격지심까지 겹치며 더욱 고립됐던 그는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현재는 지역 자활센터사업단에서 일하며 사회 복귀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광주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은둔·고립을 경험한 당사자를 발굴하고 자립을 돕는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28일 센터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센터는 2022년 정식 개소 이후 지난해 6월 동구 대의동으로 확장 이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발굴부터 사회 복귀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총 408건(센터 방문 307건·가정 방문 66건·접수 상담 35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35명의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해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리한 136명의 연령대는 20대가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38명, 10대 22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이었다. 은둔 시작 연령 역시 20대가 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 38명, 30대 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은둔의 주요 계기는 대인관계 문제가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40명, 가정 문제 11명, 취업 9명, 학교폭력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립 청년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연계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청년이 잇는 한일 우정의 끈–웃음과 존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주제로 한·일 기관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 남구청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와 개입 방안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활 습관 개선 ‘원, 원, 원, 해요!’, 대인관계 활동 ‘명랑한 은둔자 모임’, 사회기술훈련 ‘아무튼 출근’, 자조모임 ‘아무튼 모여’ 등이 있다.

특히 ‘아무튼 출근’은 4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인사를 나누고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무너진 일상 회복을 돕는다. 이를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기르고 진로 탐색과 미래 계획 수립까지 지원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136명 중 29명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취업 연계 교육 등에 참여하며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며 “은둔 경험자의 회복 이야기를 듣고, 비폭력 대화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은둔의 시간을 겪으며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렵게 다가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광주 북구, 주사기 매점매석 집중 단속
### 6월까지… 판매업체 15곳 대상 유통 실태 점검

광주 북구가 오는 6월까지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의료용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보건소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관내 주사기 판매업체 15개소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업체에서 매일 제출하는 주사기 판매 및 보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과도한 재고 보관 △비정상적 판매 증가 △특정 거래처 집중 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2026년 이전 영업을 시작한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면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올해 영업을 시작한 신규 업체의 경우는 주사기를 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단속된다.

주사기 판매 및 보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내용을 광주지방식약청으로 즉시 통보하고 업체는 고발 조치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의료용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시니어클럽과 함께하는 체력 측정** 28일 광주 서구 체력인증센터에서 열린 시니어클럽과 함께하는 단체 체력 측정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기초체력 측정 및 건강 검진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영산강·섬진강 통합물관리 재구조화 포럼
### 오늘 김대중컨벤션센터…물관리 현안 등 모색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유역의 주요 물관리 현안에 대한 ‘기후위기 시대 거버넌스: 영산강·섬진강유역 통합물관리 재구조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환경연구원, 학계, 시민단체 등 물관리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영산강·섬진강유역 통합물관리 재구조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발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환경 변화와 현행 통합물관리 체계의 과제를 진단하고, 통합물관리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물 환경, 수리권·물 이용 갈등, 홍수·가뭄 대응 등 유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무안공항 참사 유족 “동체착륙 원인 규명해야”
### 광주·목포서 상경한 유족들 보잉 서울 본사 앞 집회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항공기 기체 ‘보잉 737–800’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며 초고속 동체착륙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서울 중구 보잉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본질은 둔덕 충돌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지 못한 초고속 동체착륙”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별도로 꾸려진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 위로금 추진 결사’ 주도로 진행됐다. 유가족들은 광주·전남 목포 등에서 상경,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유가족 김윤미씨(44) 등은 기존 조사에서 둔덕 충돌 등 요인에만 초점이 맞춰진 점을 문제 삼으며 기체 결함을 포함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항공기가 정상 착륙 속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시속 약 380㎞로 동체착륙을 시도한 점에 주목했다.

고 천병일씨 동생 천병현씨 역시 “단순히 둔덕 사고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정상적인 착륙 절차가 작동하지 못했는지 근본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사고 원인으로 추력조절불능(LOTC)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류 충돌 이후 제어 모드가 변경되면서 엔진 추력이 고정돼 감속이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정상보다 약 1.5배 빠른 속도로 착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보잉737 기종에 비상 동력장치인 램에어터빈(RAT)이 장착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다른 주요 여객기에는 있는 이 장치가 유독 보잉 737에는 없었다”며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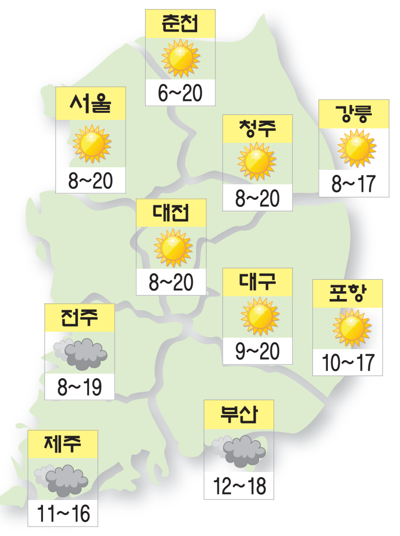
희생자 가족의 증언도 이어졌다. 참사로 딸을 잃은 윤순한씨(60)는 “(이번 참사는) 명백한 기체 결함”이라며 “딸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은 심정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보잉이 기체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청을 향해 LOTC와 RAT 미장착 등 시스템 문제를 포함한 참사 경위 재조사를 촉구하고, 비행기록장치(FDR) 마지막 1분간의 핵심 데이터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오늘의 날씨

| 해뜸 | 05:44 | 달뜸 | 17:05 |
| --- | --- | --- | --- |
| 해짐 | 19:16 | 달짐 | 04:08 |




| 지역 | 날씨 | 기온 |
| --- | --- | --- |
| 광주 | 흐림 | 8~20 |
| 목포 | 흐림 | 10~17 |
| 여수 | 흐림 | 9~18 |
| 순천 | 흐림 | 9~20 |
| 구례 | 흐림 | 8~20 |
| 해남 | 흐림 | 8~19 |
| 완도 | 흐림 | 9~20 |
| 흑산도 | 흐림 | 11~15 |
| 고흥 | 흐림 | 9~19 |
| 진도 | 흐림 | 11~16 |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 광주 | 전남 |
| --- | --- |
| 보통 | 보통 |

| | | |
| --- | --- | --- |
| 목포 | 밀물(고) | 00:36 / 12:52 |
| | 썰물(저) | 05:53 / 18:10 |
| 여수 | 밀물(고) | 07:41 / 20:11 |
| | 썰물(저) | 01:30 / 13:43 |

## ‘연락처’ 남긴 절도미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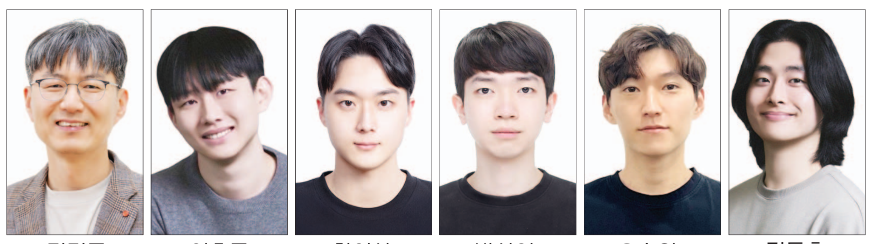
만년필 ○…한 주택에 ‘2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침입했다가 돈이 없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사죄한 절도미수범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절도미수·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범행을 지시한 B씨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A씨는 2021년 9월 “인천의 한 주택에 2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이 있어 훔쳐도 신고하지 못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하지만 집 안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자 A씨는 현장을 떠나며 대문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남기고 범행을 사죄했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씨가 연락처를 남겨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임영진 기자 looks@

## ‘새 정보 학습·기존 지식 기억’ AI 기술 개발
### GIST AI융합학과 김경중 교수팀, ‘균형 학습’ 전략 제안
### 기존지식 유지·신규학습 동시 만족 가중치 재정렬 방식



김경중 교수 / 이호준 박사 / 한이삭 석박통합과정생 / 박상연 석사 / 오승원 석박통합과정생 / 김동후 연구원

인공지능(AI)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식을 잊어버리거나 학습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이른바 ‘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전략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8일 “AI융합학과 김경중 교수 연구팀이 제안한 새로운 AI 학습 기법 ‘FIRE’가 세계적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인 ICLR 2026에서 구두 발표 논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올해 학회에는 약 1만9000편의 논문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223편만이 구두 발표로 선정됐다.

AI는 정보를 수많은 ‘가중치(weight)’로 변환해 학습하며, 이 가중치는 학습 과정에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조정된다.

그러나 학습이 반복될수록 기존 지식이 손실되는 ‘망각 현상’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는 ‘정체 현상’이 발생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지식 유지 정도와 새로운 학습 수용 능력을 각각 수치화해 두 요소 간 균형을 맞추는 학습 전략 ‘FIRE’를 제안했다. 이 기법은 두 요소의 균형이 가장 잘 유지되는 지점을 찾아 가중치 구조를 재정렬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FIRE는 가중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프로베니우스 기준’과 학습 구조의 유지 정도를 나타내는 ‘등거리성’을 동시에 고려해 최적의 균형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모델 전체를 초기화하지 않고도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해당 기법을 이미지·영상 인식, 언어 모델, 강화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한 결과,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강화학습에서도 기존 행동 전략과 보상 체계가 유지되는 등 데이터 손실 없이 학습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형 계산에 필요한 추가 연산량이 전체 학습량의 1% 미만에 불과해 학습 속도 저하나 비용 증가 없이 즉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중 교수는 “AI의 가중치 구조를 균형 있게 재정렬함으로써 기존 지식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거대언어모델, 자율주행, 로봇 제어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다양한 AI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GIST 김경중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이호준 박사가 교신저자로, 한이삭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관련 논문은 지난 2월 사전 공개 사이트에 게재된 데 이어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CLR 2026에서 발표됐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